

'野 단일화 블랙홀'에 빠질라...민주, 安·金에 손짓

〈안철수〉 〈김동연〉

단일화 상쇄 카드 마련 부심 통합정부 언급 安과 물밑 접촉 보수성향 인사 잇단 회동 김동연 후보에도 무언의 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와 관련, 일각에서 두 후보 간 '일대일 답판'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되는 등 본격

적인 추진을 위한 에너지가 점점 응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후보 단일화 논의는 선거 막판 단숨에 모든 정치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향후 지지율 흡수 및 컨벤션 효과 등으로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에서 이 후보 측은 경계심을 바짝 끌어 올리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지지를 뿔리'에 대한 당초 기대가 뜻밖에 터진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덮이면서 현재 판세가 '경합 열세'로 물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권 단일화 논의를 바라보는 이 후보 측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야권 단일화 논의를 상쇄할 카드를

마련하고 선거 막판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야권 후보 단일화에 견제구를 던지며 두 후보 간 틈 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8일 MBC 라디오에서 "물밑에서 별도의 협상을 한 것도 아니라면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양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 후보의 단일화 요청은 더 보수진영 내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 측으로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성사가 가능성과 실현시 효과를 평가절하하면서 내심 안 후보가 대선 완주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눈치다. 이

후보 측이 안 후보를 향해 국민 내각, 통합정부 등 카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구애의 손짓과 물밑 접촉을 이어 가는 것에도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가 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건 야당 후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안팎의 판단이지만, 이 후보와 안 후보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전략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후보가 이날 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회동하는 것도 중도·합리적 보수층 공략이라는 의미와 함께 윤 전 장관이 한때 안 후보의 멘토로 불렸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후보 측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결합 가능성에도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현재 지지율이 사실상 미미한 상황의 김 후보를 상대로 양자 토론 개최 제안에 단독으로 응하는 등 '무언의 리브콜'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내고 있다는 기류다. 이 후보가 김 후보를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이에 후보 등록 시점을 앞두고 김 후보의 결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김 후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딱 부러지게 제안할 수도 없다"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가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가운데)이 8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당 이재명 지지 선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임시 대의원대회를 하고 모바일 투표를 통해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중 지지할 후보를 결정했다. 재직 대의원 847명 중 741명(투표율 87.49%)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산업전환 위기, 인구 위기가 복합적으로 닥치며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치열한 현장 행정 경험과 과감한 돌파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지도자로 성장한 이 후보의 인생 역정은 한국노총의 역사성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26개 산별 연맹과 16개 광역시도 지역본부, 55개 지역지부 조직은 대선 대응체계로 재편된다. 한국노총은 "14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공세적인 대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후보와 차기 정부 노동정책 협약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18대에는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대의원 투표를 한 데 대해 "가급적이면 조합원 총투표가 바람직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강화되고 선택이 늦어지면서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며 "규약에 따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거소투표 13일까지 신고 광주시·전남도 선관위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선관위는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선박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 등 4세 주소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이달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

중도하차 압박하는尹 단일화 생각없다는 安

국힘 "후보 등록 전 결단을" 국당 "닥치고 양보는 우리 무시"

국민의힘은 8일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한 야권 단일화와 관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의견상으로는 여론조사 없는 '통큰 답판론'을 띄우고 있지만, 사실상 정권교체를 위해 안 후보의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정작 안 후보는 "생각이 없다"며 시종일관 완주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당치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주말 이전에 아마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사퇴가 유일한 단일화 방안이냐 후보자 등록(13~14일)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했다면서 "지금은 그러면 지지율이 (윤 후보가 더 높으니) 이미 다 끝났지 않았나"고 주장했다. 그는 "1위 후보로서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페이스를

놓치고 단일화 국면으로 빠져들어서 '누가 후보가 되어 되느냐' 이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다"며 "단일화 논쟁은 벌이지 않고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당 간 소모적인 협상 없이 두 후보 간의 답판 또는 안 후보의 '결단'을 통한 단일화를 촉구한 것이다. 안 후보는 중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안 후보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 당선이 목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후보자 간 답판을 통한 단일화와 관련해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들도 작년 합당 협상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압박에 거세게 반발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 지난 합당 결렬에서 봤듯이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소값으로 논하면서 한껏 무시와 조롱을 하면서 존중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는 정치 세력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남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무조건 윤석열 후보다. 닥치고 양보해라"라는 그런 답을 정해 놓고 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서울 종로 전략공천...원희룡·나경원 등 거론

국민의힘이 3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과 관련, 서울 종로 전략공천을 확정했다. 종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곳으로, 직전 당협위원장인 정문헌 전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결국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됐다. '종로 전략공천'은 인제 영입을 위한 차원으로 도 해석된다. 일각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와의 대선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략공천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와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총 10명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서초구는 이혜훈 정미경 전희경 전 의원과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의 5파전으로 압축됐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